

고베 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희생자 추모사

神戸電鉄敷設工事 朝鮮人犠牲者追悼の辞

해방 80년을 맞아 절을 올립니다.

解放 80年を迎えて挨拶を捧げます。

5년 전, 부산에서 찾아간 저희들이 청수를 올리고 셋김굿 춤을 추며 절을 올린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못난 자손들이 직접 찾아뵙지 못함을 용서해주십시오.

해방을 보지 못하고 스러져간 조상님들의 넋을 생각하며 비통하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반드시 전쟁과 분단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편히 모시겠다고
다짐했건만 여전히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5年前、釜山から訪ねて行った私たちが、清水を捧げ鎮魂の儀式（シッキムグッ）を踊りながら
お辞儀をしたことが昨日のようです。愚かな子孫が直接お伺いできる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

解放を見ることなく消えていった先祖の魂を思いながら、悲痛で切ない涙を流します。
必ず戦争と分断を終わらせ、韓半島の平和統一を実現し、安らかにお迎えすると約束しました
が、依然としてその願いを叶えられていません。

지난 해 한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불법계엄을 일으킨 친일매국 윤석열을 물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새 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제의
불법 강점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태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昨年、韓国国民はろうそくを掲げて不法戒厳令を起こした親日売国、尹錫悦（ユンソンヨル）
を追い出し、新しい政権を樹立しました。新しい政権が民主主義を回復するだけでなく、慰安
婦問題や強制徴用など植民地支配に対する日本政府の謝罪と賠償を解決するのに、先頭に立つも
のと期待しました。

しかし、韓日首脳会談を2度も行ったものの、何の成果も出せなかっただけでなく、日本帝国
主義の不法な強占と植民地支配に免罪符を与えた朴槿恵（パククネ）、尹錫悦（ユンソンヨル）
政権の屈辱的な態度を継承する姿を見せています。

최소한 고노 담화나 김대중 오부치선언, 무라야마 담화를 이어받고, 이를 더 발전시켜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고인들의 억울하고
통절한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산평통사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에 부산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장 앞에서
“불법침략, 식민지배 사죄하라!” “한일동맹 구축 중단하라!”고 이시바 총리를 향해 힘차게
외쳤습니다. 저희들이 벌이는 이같은 활동이 고인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少なくとも河野談話や、金大中（キムテジュン）・小渕宣言、村山談話を受け継ぎ、これをさ
らに発展させてこそ、韓日関係が未来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信じています。このような変化が
あってこそ、故人の無念で痛切な恨みが少しでも解けるでしょう。

これに対し釜山平統社（プサンピョントンサ）の会員たちは9月30日に釜山で開かれた韓日
首脳会談場前で「不法侵略、植民地支配を謝罪せよ！」 「韓日同盟の構築を中止せよ！」と石

破首相に向かって力強く叫びました。私たちが繰り広げるこのような活動が故人の魂を少しでも慰め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

한국의 후손들이 마땅히 챙겨야 일들을 이곳 고베에 계시는 분들이 잊지않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마운 정성을 언제나 잊지않겠습니다.

고베 시민들이 미일동맹 강화로 인해 비핵고베 방식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투쟁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평통사는 비핵고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韓国の子孫が当然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ここ神戸にいらっしゃる方々が忘れずに面倒を見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ありがたい真心をいつも忘れません。

神戸市民が日米同盟の強化によって、非核神戸方式が弱体化することを憂慮して闘争し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をよく知っています。釜山平統社は、非核神戸が守られるように連帯の紐を緩めず、いつも共に行動します。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걷어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저희 후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비핵평화의 길을 크게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누우신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남기신 당부라고 믿고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分断と戦争の痛みを取り除き、自主と平和、統一を成し遂げるために、私たち子孫は、最善を尽くして一生懸命活動します。日本の平和運動と連帯して、非核平和への道を大きく開いていきます。それがここに眠られている先祖たちが、私たちに残していただいた頼みだと信じいつも最善を尽くします。

2025년 10월 19일

2025年10月19日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釜山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